

기

문

있다
가운
가능
별로
개기
형

「太平洋유족회」사단법인신청

政府 8차례 묵살

1992. 01. 17. 동아

태평양유족회 당시 국민
군속 「부자충신」으로 불
려가 희생당한 피해자 유족
들의 모임인 태평양유족회
생자유족회가 「국민 8차
례에 걸쳐 「사단법인」 설립
인가신청서를 썼으나 정부
당국에 의해 매번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회는 지난 88년 6월
보사부에 처음 사단법인설
립인가신청을 했으나 「해의
희생자를 위한 사업회」 등의
유사단체가 이미 법인(인)
설립돼 있어 또 다른 법인
설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반驳했다.

유족회는 이후 89년 6월
2차인가신청(88년 12월)을
냈을 때 「인정구성과 재산상
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차 신청(89년 6월) 때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유족회는 이후 89년 6월
2차인가신청(88년 12월)을
냈을 때 「인정구성과 재산상
태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3차 신청(89년 6월) 때
신청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

한편 지난해 유족회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국회보사
위와 노동부는 「유족
회의 사단법인 설립취지는
타당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상당한 사업수행능력이 인

정되며 실제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
므로 설립인가를 「유족회
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을 표명, 반면 법원측은
유족회 설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